

인카운터 VI 전시

저항가의 이상 The Ideal of The Resisters

‘인카운터VI’는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의 우수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로써, 참여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대 사진예술의 방향성과 사진의 예술성만의 무한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저항가의 이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포트폴리오 리뷰 우수작가로 선정된 5명의 작가, 김민주초원, 이한구, 이예은, 서종혁, 정성태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저항가의 이상」展은 펜데믹 상황에서 마주치지 않아야만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대하여 저항하는 예술가들의 사명감을 그들만의 작품세계로 승화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사회적 거리’가 일상의 생존법칙으로 작용되어지면서 상실되어가고 왜곡 되어가는 만남의 본질에 대하여 다섯 명의 작가들은 인간존재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이번 전시는 눈을 마주치며 마주하고 서로의 온도를 느끼는 만남의 실체만이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뜻밖의 만남’,

그것은 목마르고 척박한 삶을 채워주는 신비스러운 실체이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한없이 왜소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눈을 맞추고 마주하며 손을 내밀고 온도를 나눌 때 이상(理想)을 경험하는 인간만의 특권을 그대로 증명한다.

The Ideal of The Resisters

Encounter VI' is the exhibition that introduces the photographs of artists selected as excellent artists in the Daegu Photo Biennale Portfolio Review. Through the participating works, the direction of Korean contemporary photo art and the infinite value of the artistry of photography have been expressed.

This exhibition, which will be held from September 10 to November 2, presents the works of five artists selected as the excellent artists in the portfolio review in 2018 under the theme of "The Ideal of The Resisters", MinzouChowon GHIM, Han-Koo Lee, Ye-eun Lee, Jong-hyeok Seo, and Sung-Tae Jung will be presented

"The Ideal of The Resisters" exhibition displays photographs that sublimate the sense of duty of artists who resist the demands of the times that must not be encountered in a pandemic situation into their own world of work. The five artists raise fundamental questions of human being about the essence of encounters that are lost and distorted as 'social distance' acts as a rule of daily survival. This exhibition contains the message that only the substance of encounter where we make eye contact and feel each other's temperature has the vitality to revive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Encounter'

It is a mysterious substance that fills a thirsty and barren life. Through this exhibition, the artists reveal the existence of an infinitely small and frail human being, while at the same time proving the unique privilege of human beings to experience ideals when making eye contact, reaching hands out and sharing temperature.